

친윤계 당정일체론 띄우기...“윤 대통령 명예 대표 추대”

“당과 정부는 필수 없는 관계”

비윤계 “용산 출장소 만들기” 반발
당 지도부 ‘명예 대표론’ 온도차

국민의힘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가 연일 ‘당정 일체론’을 띄우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과 정부가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위한 방안으로 윤 대통령의 ‘명예 당 대표 추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형 비대위원은 15일 BBS 라디오에서 “당과 정부가 어떻게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겠냐”라며 “당과 정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여론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명예 대표’를 맡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당이) 보다 더 밀접하게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책임 정지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힘을 실었다.

정미경 최고위원 후보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정일체론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며 “당정 일체가 안 되면 일단 집안 내부 분열이 너무 심해진다”고 거들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이날 친윤계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 세미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명예 대표론’에 대해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선 때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당정 분리론이 나왔던 것”이라며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집권당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반면, 비윤계는 즉각 반발했다.

당권 주자인 천하람 후보는 KBS 라디오에서 “명예 당 대표 이런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입법부는 행정부와 협력하는 것도 있지 만 감사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있다. 여당을 용산 출장소로 만들 거냐”고 비판했다.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도 페이스북에 “당정일체”를 외치는 분들의 속내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총선 공천 개입’을 바라는 것 아닌가”라며 “권력에 야합하고자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마저 팔아먹는 군요”라고 비난했다.

당 지도부 내에서는 ‘윤 대통령 명예 대표론’ 등을 두고 다소 온도 차가 감지됐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예 대표 추대론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도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은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언급, “책임을 진 여권으로서 충실히 일을 다 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그런 측면에서라면 당정 분리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도 집권여당으로서 정부를 충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당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는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당정 관계는 협력도 하면서 약간의 견강한 긴장 관계도 유지해야 하는 관계”라며 “긴장 관계만 유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일치 되면 건강한 비판 기능이 없어질 수 있다. 모든 것은 중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통신·금융업계 고통 분담 요구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주요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4대 민생’ 분야의 지출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많은 어려운 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신·금융 업계가 정부 인허가에 기반한 과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그 혜택을 누려온 만큼 경제가 어려울 때 공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참모진과의 회의에서도 은행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며 고금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서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

다”며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에도 위기 극복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양강구도 균열 노리는 천하람·황교안

컷오프 이후 두자릿수 지지율

김·안 양강 후보 패러기로 존재감

결선투표 캐스팅 보트 역할론 주목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4차 구도로 압축되면서 선두권 김기현·안철수 후보를 추격하는 천하람·황교안 후보의 스피드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직은 김기현·안철수 양강 구도가 뚜렷하지만, 천하람·황교안 후보의 지지세는 향후 결선투표 여부를 결정하고 ‘캐스팅보트’ 역할 등 이번 전당 레이스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0일 예비경선(컷오프) 이후 집계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천·황 후보는 대체로 두 자릿수 지지율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5일 국민리서치그룹-에이서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484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5%포인트)의 차기 당 대표 적합도는 김기현(38.6%), 안철수

(29.8%), 천하람(16.5%), 황교안(10.7%) 후보 순이었다. 가상 결선 투표에서는 김기현(49.1%), 안철수(42.0%) 후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천·황 후보는 연일 선두권 후보를 집중적으로 견제하면서 존재감 드러내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천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김 후보를 겨냥해 “연대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으신가”라고 하고, 안 후보를 향해선 “진은 호소인 내지는 ‘윤심 호소인’ 해서는 앞으로 지지세가 빠질 일밖에 안 남았다”고 직격했다.

황 후보는 전날 부산 합동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를 일일이 거명하면서 “생생 건 단식 해 봤느냐. 신념을 지키기 위한 식발 해 봤느냐. 선당후사를 위해 서 험지에 출마 해 봤느냐”라면서 강성 보수 이미지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안철수 후보 측은 일단 별다른 대응 없이 상호 견제를 통한 선두 다툼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 측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로서는 천 후보를 괜히 띄워줄 필요도 없고 황 후보와 말을 섞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여론 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힘 오늘 광주서 광주·전남북 합동연설회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광주·전남·전북 합동연설회가 16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제주와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참석해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연설회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이기

인·김정식·김기람·장예찬 순) 및 최고위원 후보자(김용태·하은아·정미경·태영호·민영삼·김병민·조수진·김재원 순)들부터 각각 5분간 정견 발표를 한 뒤, 당 대표 후보자들이 7분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당 대표 후보의 경우 황교안 후보를 시작으로 천하람, 안철수, 김기현 후보가 차례로 나설 예정이다.

김정현 광주시장위원장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는 당원들의 축제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과 광주·전남·전북의 비전을 제시하는 축제의 장”이라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행사를 진행해 합동연설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본경선 투표는 오는 3월 4일부터 7일까지 모바일 및 ARS(자동응답) 투표로 진행된다. 모바일 투표는 3월 4~5일, ARS 투표는 모바일 투표 미참여자에 한해 3월 6~7일 이틀간 진행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 OPEN

2023년 2월 1일,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7층 | ☎ 062-521-0041

꿈을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SGI서울보증